

# 공동체와 전통, ‘맏는말’의 재발견

정정훈 지음, 『노란 코코넛 마을: 발리 그리고 우붓 사람들』(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2)을 읽고

김형준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 I. 발리에 대한 한국 인류학자의 첫 연구

자바섬 동부에 위치한 작은 섬 발리는 인도네시아보다 외국인에게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인도네시아보다 더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황홀한 섬’, ‘천상의 섬’, ‘신들의 섬’과 같은 표현은 발리가 구축한 독자적 이미지를 예시하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마지막 지상 낙원’으로서 발리는 독보적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620만여 명의 외국인이 발리를 방문했다. 팬데믹 상황이 완화된 2022년, 발리 관광은 빠른 회복세를 보여서,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섰고 12월 한 달에는 그 수가 37만 명에 이르렀다.

발리로 관광객을 유인하는 배경으로는 다양한 요소가 거론된다. 천혜의 바다와 산을 포함한 자연환경, 예술과 종교로 표현되는 문화적 전통과 이국성,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 인프라 등은 발리 관광의 대표적 장점이다. 그중 예술과 종교, 그리고 여기에 더해 발리인이 구축한 복잡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인류학자의 관심을 끌어낸 요소이기도 하다. 발리 마을의 수만곱이나 많은 학자들이 발리를 연구하고 있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발리는 인류학 연구에 있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인도네시아를 전공하는 한국의 인류학자들은 자바에 집중하여 연구하는 경

향을 보였다. 몇몇 학자가 수마트라와 술라웨시에서 현지 조사를 수행했지만 발리는 관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정훈 박사의 연구는 한국 인류학자에 의한 본격적인 첫 번째 발리 연구라는 학문사적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지역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 중요성을 지녔다. 우리도 이제 발리 연구자가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해 준 그의 연구는 인도네시아, 나아가 동남아시아에 대한 한국의 인류학적, 지역학적 연구가 일정한 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한다.

『노란 코코넛 마을』에는 발리 연구자를 오랫동안 매혹해 온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마을 공동체를 지칭하는 반자르(banjar), 관개 조직을 일컫는 수박(subak), 계단식 논, 닭싸움, 힌두 신과 의례처럼 발리의 사회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되어 온 요소가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의 독자성은 이런 요소를 자족적 체계로서가 아닌 현재적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이다. 발리의 현재적 맥락으로 정정훈 박사가 주목한 측면은 관광이다. 발리 인구보다 많은 관광객이 발리를 방문한다는 사실은 발리의 현실을 분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될 문제로 보이지만, 관련 연구에서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 발리 문화의 고유한 원형적 특징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이며, 이런 연구들은 새로운 변화 속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본질적 특징에 관심을 가졌다.

새로운 변화의 동력으로서 관광이 기존 발리 연구에서 관심을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관광이 미친 사회문화적 변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이어져서, 전통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문화 및 생태 관광, 관광으로 촉발된 문화적 재해석, 관광을 통한 지역 전통의 강화와 같은 측면이 검토되었다. 하지만, 이런 연구 중 상당수는 관광이라는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관광을 매개로 한 현지인과 관광객의 상호작용, 관광에 대한 현지인의 인식과 실천 그리고 관광을 통해 재구성되는 현지인의 사회구조 등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간과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정훈 박사 연구의 중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그의 연구는 관광이라는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관광을 그 자체로 제한시키지 않고 전통과 공동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검토하고 있다. 관광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인 발리의 지역 공동체에서 전개되고 있는 변동의 과정을 다차원적이고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학문적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 II. 인도네시아 농촌 공동체의 실재함

2022년 12월 인도네시아의 형법 개정 소식은 세계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혼전 성관계를 금지한 형법 개정안이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적용되어 혼인 증명서 없이 관광하는 외국인 커플이 처벌될 수 있으리라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발리 주지사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료들은 외국인에 대한 처벌의 현실적 불가함을 거듭하여 지적했다. 혼전 성관계가 친고죄 형식을 취하고 고발 주체가 부모와 자식으로 제한되기에 외국인이 혼전 성관계죄로 기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개정 전 인도네시아 형법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 제정된 법률의 기본틀을 유지한 채 부분적인 수정만이 가해진 상태였다. 이로 인해 형법을 개정하지는 요구가 오랫동안 제기되었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후 20여 년이 흐른 뒤 새로운 형법 체계가 완성되었다. 개정안 초안이 몇 년 전 처음 공개되었을 때 시민 사회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일부 조항은 국회 통과 막판까지 문제시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대통령과 국가 기관에 대한 모독죄, 허위 뉴스나 유언비어 유포죄 등과 같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항과 비교할 때, 혼전 성관계 이슈가 논란에서 한 발 비껴나 있었다는 점이다.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이 문제가 인도네시아 국내의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은 성생활을 개인의 자유나 사생활 문제로 취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상당수 인도네시아인이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인도네시아 농촌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전통 관행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인도네시아 농촌 마을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해 직접적이고 집합적으로 대응하는 전통을 유지해 왔다(Colombijn and Lindblad, 2002; Jay, 1969). 마을 구성원에 대한 외부의 물리적 공격이나 절도는 전형적인 위협 사례에 해당해서, 폭력을 행사한 외부인이나 절도범이 현장에서 붙잡힐 때 경찰의 개입 없이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죄를 스스로 처벌한다(main hakim sendiri)'라고 불리는 이런 관행의 대상으로는 마을 여성과 교제하는 외부인 남성이 때로 포함된다. 폭력이나 절도와 비교할 때 미혼 남녀의 교제는 훨씬 복잡한 문제

로서 공동체적 대응을 필연적으로 유발하지는 않지만, 남녀 교제가 공동체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혼전 성관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이웃, 나아가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문제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이를 범죄화하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형법 개정안에 포함된 혼전 성관계 처벌, 나아가 ‘스스로 죄를 처벌하는’ 관행은 인도네시아 사회, 특히 농촌 사회가 공동체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흥미로운 점은 전통 사회에서 강하게 형성된 공동체성이 농촌 마을의 존재 조건이 급격하게 변화한 현재까지도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인도네시아 대다수 농촌 마을이 더는 폐쇄적 공간이 아니고, 농촌 주민의 생활활동이 거주지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외부인의 유입이 가속화된 상황에서도 공동체적 활동과 태도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공동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인식과 실천이 무엇일지와 같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정정훈 박사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공동체성의 유지와 변형에 대한 다차원적인 분석을 통해, 『노란 코코넛 마을』은 인도네시아 사회를 특징짓는 것으로 설명되는 공동체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 준다.

### III. 농촌 공동체성의 재발견

일상에서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자주 이용되는 공동체 개념은 모호함을 내포한다. 고전 사회학에서는 공동체를 일상적 대면 관계로 맺어진 소규모의 동질적 집단이며 기계적 연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집단으로 규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이런 식의 개념화가 지극히 이상화된 설명으로서 현실에서 전개되는 집단 구성원 간의 균열과 갈등, 지배와 배제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고(Amit, 2004; Marcelin, 2006), 이 개념은 학문적으로 주변화되었다.

고전 사회학의 개념화가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에 한계를 가진 점은 명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 개념을 포기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공통의 정체성을 구성하며, 베네딕트 앤더슨(2018)이 지적한 ‘동류의식’을 공유하는 집단이 현재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된 공동체 개념을 통해 현실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훈 박사의 지적처럼(233, 이하 인용 쪽수만 기재) 자신들을 “공통의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규정하는 집단의 특성과 작동 방식을 밝혀내는 것이다.

정정훈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연구대상지인 발리 우붓(Ubud)의 노란 코코넛 마을 주민은 과거 혈연관계로 맺어져 있었고, 힌두교를 믿고 실천하는 종교 활동을 공유했으며, 농업을 중심으로 한 생계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게마인샤프트’적 특성을 간직했던 노란 코코넛 마을은 관광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외부인이 자본을 투자하여 마을에 관광시설을 설립했으며, 여기에서 일할 외부인, 특히 자바인이 유입되었다. 일시적으로 관광을 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장기거주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여 마을 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으며, 전체 가구의 1/3이 토지나 집을 이들에게 임대했다. 관광업을 포함한 서비스업 종사자 증가에 발맞추어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은 급감했다. 지대 상승 그리고 관광업으로의 진입 차이 등으로 인해 주민 간 빈부 격차가 확대되었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소수를 위해 다른 주민의 희생이 강요되며 관광을 둘러싼 주민 간 긴장과 갈등이 격화되었다. 노란 코코넛 마을에서 전개된 변화는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차이를 확대하고 공동체를 지탱해 온 동질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약화, 나아가 해체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리라 예상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 해체를 가속화할 상황의 등장에도 노란 코코넛 마을의 공동체성이 유지, 강화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외부 변화가 초래한 공동체의 균열 가능성을 간과하지 않으며, 이를 논의의 한 축으로 설정한다. 관광객 증가가 빌라나 게스트하우스, 식당 주인에게나 이득을 줄 뿐 자신에게는 좋은 점이 없으며 삶의 평안함을 깨뜨린다고 토로하는 주민(217), 장기거주 외국인을 공동체의 삶에 과부하만 일으키는 존재로 폄하하는 주민(240), 마을 주차장 부지를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임대하려는 주민과 이에 반대하는 주민 간의 충돌(250), 관광지화에 따른 지가와 생필품 가격의 상승(140), 외부인의 일상 의례 참여가 가져오는 불편함을 불평하는 주민(268), 나아가 인간이 아닌 그림자와 같은 존재로 자신들이 취급된다고 생각하는 자바

인(73),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기부금을 징수당하거나 징수를 거부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장기거주 외국인(236) 등 마을의 삶에는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이 산적해 있다.

관광이 가져온 균열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노란 코코넛 마을의 주민은 동류의식, 공동의 운명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의 변화 과정에서 이를 오히려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관광객 유입을 비판하면서도 받아들이는 한 마을 주민의 말을 통해 요약적으로 표현된다(216).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마을에 외국 사람이 많이 거주해야 나도 잘살고 마을도 부유해지지.” 이 주민이 표출한 잘사는 마을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식의 견해는 운명공동체로서의 이들의 인식을 대변한다. “개인, 가족, 이웃 주민 각자의 경제적 성취가 마을 전체 발전이라는 믿음”(217)의 형성 배경을 저자는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 번째는 과거부터 존재해 온 반자르, 여성 모임, 청년 모임 등과 같은 마을 내부 조직이다. 이런 단체는 가구 대표 모두를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됨으로써 공동체 성원의 동등함을 강조한다. 이런 단체의 활동을 분석하면서 저자는 그 의사결정 절차에 초점을 맞춘다. 협의와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관행이 유지됨으로써, 주민 사이의 동류의식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런 주민 조직은 외부인, 즉 “언젠가는 떠날 ... 종교도 다르고 조상도 다른(233)” 사람을 배제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런 배제의 논리는 앤더슨이 제시한 국가가 제한된 범위로 상상된다는 주장을 상기시킨다. 마을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장기거주 외국인이나 외지인을 배제함으로써, 주민 조직은 배타성에 기반을 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관광 확대에 따라 마을에서 새로 조직된 치안 담당 삐צל랑(peccelang) 단체와 택시 조합이다. 저자는 삐צל랑을 공권력의 권위를 위협하는 지역 사회의 패권 세력으로 바라보는 시각(조운미, 2011)을 비판하면서 외국인에게 보이는 이들의 과도한 친절을 예로 들며 이들이 반자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택시 조합은 공동체성의 강화와 관계없는 이익 집단처럼 보인다. 하지만, 조합원으로 하여금 수익금의 10%를 마을에 기부하도록 하고 마을 호텔의 승객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압력을 마을 주

민 모임이 가함으로써, 사적 활동을 공동체적 활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이 지점에서 저자는 내부 연대의 정교화(involution)라는 개념(253)을 제안한다. 인구 압력에 직면했던 자바의 농촌 마을에서 기존 농업 관행을 세분화하고 다양화하여 더 많은 주민에게 생계유지 기회를 제공했던 것처럼(기어츠, 2012), 공동체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조직 활동을 체계화하고 정교화하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저자가 주목한 세 번째 측면은 전통 의례다. 주민의 관여 정도에 따라 관광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상황(265)에서 호혜성에 기반을 둔 개인 의례는 주변과의 신뢰, 사회적 평판을 높일 수단으로 작용했다. 마을의 공동 의례는 이와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성을 강화했다. 장례식 그리고 성인식의 일부인 이 갈기 의례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마을 내 개인과 단체가 각자 사정에 맞추어 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관행이 확립되었다. 기부금의 규모 차이는 관광 발전 과정에서 야기된 소득 불균형에 따른 내부 갈등을 해소하고 부의 재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기제로 작동했다.

네 번째는 안정적이고 잘사는 마을로서의 이미지 구축이 가져오는 정서적 이익이다. 마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노란 코코넛 마을은 다른 마을 주민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다. 이는 마을의 가치 상승을 가져왔고 그 과실을 구성원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원숭이 사원에 인접한다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과거 학교에서 '원숭이 자식'이라고까지 불렸던 마을 주민은 마을의 학생들이 지금은 이런 식의 대접을 받지 않으리라고 확신하면서 마을 발전이 개인에게 가져온 긍정적 효과를 지적했다(282). 잘 사는 마을이라는 담론은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마을의 운명이 개인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을 강화해 주었다.

혈연관계와 종교는 과거 노란 코코넛 마을의 공동체성을 뒷받침한 핵심 요소였지만, 관광 확대라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공동체 의식이 자동으로 유지되었던 것은 아니다. 저자는 구성원이 경험하는 실질적 이익 그리고 경험하리라 기대하는 미래의 이익에 의해 공동체성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제기한 '내부 연대의 정교화' 개념은 발리, 나아가 인도네시아 농촌의 공동체성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들을 제공해 준다. 기존에 존재하는 조직의

운영과 활동을 공동체적 연대를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재조직화하고, 새롭게 생겨나는 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공동체적 이익과 연결되도록 구조화하며, 전통 의례를 공동체의 균열과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노란 코코넛 마을은 새로운 성격의 공동체성을 구축할 수 있었다.

공동체 유지의 메커니즘은 지역적으로 차이 나겠지만, 노란 코코넛 마을의 사례는 발리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농촌 사회에서 작동하는 공동체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비교자료를 제공한다.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집단 내 이질성 확대는 공동체성 구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자의 분석에서 드러나듯, 이질적 구성원의 유입은 기존 공동체의 경계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공동체적 활동의 대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성 강화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공동체성이 다원성과 교묘하게 얽혀 있음을 시사한다. 공동체성이 다원성을 포함할 수 없지만, 다원성을 통해 자신의 기반을 공고히 만들 수는 있다.

#### IV. 문화적 전통의 재발견

이 책 1장에서 지적하듯, 관광에 관한 인류학적 연구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고유성(authenticity), 즉 관광 대상이나 지역이 관광객에게 어떠한 고유성을 제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기존에 논의되던 객관적 고유성과 구성적 고유성이 아닌 실존적 고유성(existential authenticity)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관광 대상을 중심으로 규정된 객관적, 구성적 고유성과 달리 관광객의 관광 경험을 중시하는 실존적 고유성에 집중할 때, 관광 연구는 관광 대상이 진품인지 고유한 것인지라는 질문에서 벗어나 관광객이 커뮤니티적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적 실체에 대해 어떤 고유성을 획득하는가라는 물음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이런 전환을 통해 저자는 새로운 관광객 유형인 거주 관광객과 이들이 미친 영향의 의미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객관적·구성적 고유성의 기준으로 볼 때 노란 코코넛 마을은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유명 관광지인 우붓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문화 관광의 주요 대상인 화려한 의례나 세련된 예술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이 마을은 때로 1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거주할 정도로 주요한 관광지로 발돋움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관광객이 느끼는 일상적 즐거움과 만족, 친숙성과 쾌적함에 주목한다.

객관적 고유성을 추구하지 않는 관광객은 자연친화적,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심을 두며, 관광 대상물이 아닌 일상적 즐거움과 안전을 중시한다. 이들은 생태관광, 전통 가옥, 종교 의례를 경험하면서 지역 문화를 재인식하는데, 이들에게 있어 발리의 전통문화는 일상에서 비롯된 생활양식이지 유명 유적지나 예술 공연이 아니다. 공동체에 대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자는 이러한 '탈근대' 관광객(21)으로 연구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이들에 대한 마을 주민의 대응과 실천 양상을 검토한다.

거주 외국인에게 안정감을 주는 전통 의상은 마을 주민의 새로운 사회문화적 실천 양상을 요약적으로 표현한다. 마을 회의의 결정에 맞추어 주민들은 매일 집 앞을 청소할 때마다 전통 의상을 착용하며, 대부분의 마을 여성은 전통 의상 차림으로 생활한다. 택시조합원과 뼈짚랑 역시 전통 의상을 착용함으로써 전통 수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립하고자 노력한다. 거주 외국인의 일상적 의례 참여는 주민 실천의 또 다른 사례다. 주민들은 외국인을 일상 의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들에게 친절과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마을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신뢰감을 높이고자 했다. 편리한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주민들은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마을 통신 설비를 증설하며, 참을성 없는 외국인의 응대를 받아들일려고 노력하는 한편, 외국인이 관심을 보이는 문제를 이해하고자 꾸준히 시도하면서 전통이 실현되는 안전한 마을환경을 구축하고자 했다.

거주 외국인이 추구하는 실존적 고유성, 이들에게 안전함과 신뢰감을 제공하려는 주민의 실천 양상을 분석하면서 저자는 전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한다. 기존 연구가 '전통의 발명'이나 '전통의 재창조'에 집중함으로써 전통을 관광 대상물에 투영된 고유성으로 이해했다면, 관광 경험에서 비롯된 존재론적 고유성이 포함된 전통은 저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다(300).

전통이 발명과 창출의 개념을 넘어서, 역사적 과정에서 파생된 주민 집단의 실천적 측면으로 이해된다. 이로써 전통이란 과거에 생성되어 현재까지 전승된 것이 아닌,

현재의 문화적 맥락에서 재해석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전통에 대한 주민의 현재적 인식과 실천을 강조하는 저자의 시각은 노란 코코넛 마을 사례가 가진 응용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 개발을 기획하는 많은 지역에서는 전통문화를 활용하여 관광객이 경험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하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노란 코코넛 마을 사례는 관광객의 존재론적 고유성의 경험이 전통과 연결됨을 지적한다. 따라서, 전통을 둘러싼 주민 집단의 사회적 실천, 전통에 대한 주민의 재인식, 마을 공동체의 단합과 상호 신뢰 구축은 탁월한 문화유산이나 전승된 전통문화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통해 우리는 실천적이고 응용적인 차원에서 이 연구가 가진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V. ‘맺는말’의 재발견

이 책의 5장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기’ 소절에는 냉장고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195-200). 외국인에게 필수품인 냉장고는 현지인에게는 그렇지 않은데, 매일 아침 장을 보고 장 본 물건을 거의 다 그날 사용하는 생활패턴, 그리고 우유나 물, 얼음에 대한 상이한 소비패턴이 그 이유이다. 이런 차이로 인해 냉장고가 없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집에서 살아야 했던 저자 가족의 당혹감, 거주 외국인이 가져온 거대한 냉장고를 보며 주민이 느낀 놀라움이 결과했다. 가로 폭이 1미터 전후인 발리 대문으로 냉장고를 옮길 수 없던 주민들이 그것을 담장 위로 들어 옮기는 모습은 거주 외국인과의 주민 사이에서 형성된 혼란과 긴장을 생생하게 그려 준다.

냉장고 사례가 보여 주듯 이 글은 현지조사를 통해 저자가 수집한 다양한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 간다. 주민과 거주 외국인의 입장을 전해 주는 풍부한 인터뷰 자료에 더해 여러 상황에서 수집된 사례를 기반으로 현지 상황이 기술됨으로써, 현실 분석에 생생함이 더해지고 자료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이런

측면에서 이 연구는 장기간의 현지조사를 통한 자료수집이라는 인류학적 방법론의 전형을 예시한다.

민족지 연구 및 분석 방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이 글에서 파격적인 부분은 '맺는말'이다. 맺는말은 독립된 장으로 구성되지 않아서 7개 장의 본문이 완결된 후 덧붙여진 형식을 취한다. 내용상으로도 독특하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학문적 의미나 한계를 지적하는 일반적인 맺는말과 달리 저자가 어떻게 마을 주민과 관계를 맺고 이들이 저자를 어떻게 구성원으로 인정하게 되었는가의 과정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은 보통 글의 앞머리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파격적 구성의 이유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맺는말, 특히 그 첫부분을 몇 차례 읽은 후, 파격적 배치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 책의 주요 분석 대상 중 하나는 노란 코코넛 마을의 공동체성인데,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이를 분석하고 있는 본문과 차이 나는 서술이 맺는말에 제시되어 있다(302).

이 책은 노란 코코넛 마을 주민이 가진 공동체성의 위대함을 강조합니다. ... 앞서 '위대함'이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사용했지만, 뉴꾸닝[노란 코코넛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성은 도리어 일상에서 주변 이웃, 관광객 그리고 거주 외국인과의 끊임없는 관계 맺기와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저자는 연구를 수행할 당시 우리가 공동체에 소속되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고 때로는 손해 보고 그리고 진짜 열심히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경험했습니다. 집주인 사리 아저씨, 밤낮으로 마을지킴이 역할을 했던 삐짚랑 아저씨들 ... 실현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이상에 절망하지 않고, 작은 것, 내 앞에 있는 것, 개인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것부터 바뀌어나가는 이들의 태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맺는말에는 노란 코코넛 마을의 공동체성을 바라보는 저자의 입장이 체험적 서술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저자는 '위대함'이라는 말로 이를 평가하며, 한국적 상황과 비교하면서 이들의 태도에서 배워야 할 많은 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저자의 솔직한 진술은 공동체성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이런저런 식으로 해부해 보고 공동체성의 유지, 강화 요인을 4가지로 정리한 서평 쓰기 과정을 덧없는 작업처럼 느끼게 했다. 맺는말에 있는 이 짧은 서술만으로 노란 코코넛 마을의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훨씬 더 실감 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학 연구가 가진 신뢰성과 타당성, 객관성의 문제는 현지조사 방법론과 관련되어 오랫동안 논의된 주제다. 한동안 지지되었던 인류학적 연구의 객관성은 20세기 후반 커다란 도전을 받았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연구자의 개인적 상황, 주관적 경험에 대한 자세한 서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완전한 해결책일 수는 없었고, 근래에는 인류학자가 그려 내는 현실에서 고려되어야 할 비인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이 문제는 현재 진행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감정을 가진 자신의 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인류학자의 상황은 현지조사의 인식론적, 존재론적 상황에 대한 간명한 해결책을 구하기 어렵게 한다. 정정훈 박사의 파격적인 맺는말이 이런 논란에 대한 답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그것이 본문에 제시된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본문의 자료를 더욱 실감 나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떠오르는 문제는 현재의 구성에 맞추어 맺는말을 본문을 읽고 난 후 읽어야 하는가이다. 맺는말을 먼저 읽고 본문을 읽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서평을 쓰는 평자는 이런 식의 글 읽기를 시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맺음말이 가진 힘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을 먼저 읽음으로써 본문의 내용을 훨씬 더 생생하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는 제안을 독자에게 던지고 싶다.

투고일: 2023년 7월 17일 | 게재확정일: 2023년 7월 31일

## 참고문헌

- 기어츠, 클리퍼드 저. 김형준 역. 2012. 『농업의 내향적 정교화: 인도네시아의 생태적 변화 과정』. 일조각.
- 앤더슨, 베네딕트 저. 서지원 역. 2018. 『상상된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 도서출판 길.
- 조윤미. 2011. “낙원의 폭력: 발리(Bali) 섬의 종족적 긴장과 자경주의 폭력 사례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1(2), 317-350.

- Amit, Vered. 2004. "Community." Adam Kuper and Jessica Kuper, eds. *The Social Science Encyclopedia*, 138-140.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Colombijn, Freek and Thomas Lindblad. 2002. *Roots of Violence in Indonesia*. Leiden: KITLV Press.
- Jay, Robert. 1969. *Javanese Villagers: Social Relations in Rural Modjokuto*. Mass.: The MIT Press.
- Marcelin, Louis Herns. 2006. "Communities." James Birx, ed. *Encyclopedia of Anthropology*, 538-539. Thousand Oaks et al.: Sage Publications.